

지방발전 대책 나올까

한나라당, 10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과 관련,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방발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6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레크리온 호텔에서 열기로 확정했다"면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는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의 소망을 들어보기 위해 내주 초 전국 시도지사와 우리 당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 27일로 예정된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든 우리는 지금 하나로, 같은 배를 탄 한 가족"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목자는 것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다진다. 목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가장 실감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변화 물결이 한반도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와 우의 협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오바마가 당선되고 상향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지난 10년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대외 정책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바뀌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바마 당선으로 갈림길 선 한미 FTA

정치권 '先비준' 논란 가열

한나라 "美 압박위해 필요" 민주당 "대책이 먼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가 대체로 비준안 처리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쟁은 처리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先) 비준'을 통해 미 의회를 압박하자는 입장지만 민주당은 내년 중반 이후가 적기라며 침체하게 맞서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내주 초 외교통상통일 위원회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야 간사단의 17일 밤미 전 상임위에서 의결할 구상이었다. 하지만, '선(先)비준, 후(後)비준'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져서 6일 당정책회의를 열고 밤미 이후 여야 합의의결로 선회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선 비준' 입장에 반대키로 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비준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 ▲농촌 등 피해대책 마련 ▲미국 정치상황 주시 ▲세계 경제위기의 파장 점검 등을 통해 보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미 의회는 한국 의회의 비준 여부가 아니라 국외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결정할 것이지만 '선(先)비준을 통한 미 의회 압박'은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제2정조 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미 FTA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준다"며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내년 9월 이전에 미 행정부가 FTA 법안을 의회에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밤미단 귀국 이후 상임위 의결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저지에 나설 경우 한미 FTA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바마가 한미 FTA와 관련, 구체적인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 거론한 만큼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에는 먼저 하고 미국에 비준을 촉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 비준'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닭은 꿀' 유감



임동욱

서울취재팀 팀장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47) 상원의원이 지난 4일 실시된 대선에서 존 매케인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미는 그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농축된 통합과 변화의 에너지는 미국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동력이 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의 역대 정권이 그동안 추구해온 패권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자간 외교와 진보적 경제 질서가 도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당선은 이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은 한심하다 못해 황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오바마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과 관련,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닭은 꿀"이라고 자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이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내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부상한 점,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점 등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며 "당내 경선에서 여성 라이벌을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된 뒤 '경제 이슈'를 선점, 결국 승리를 한 것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닭은 꿀은 오바마 당선인보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더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같은 보수정당 출신인데다 시장 근본주의 및 자유무역주의 성향, 감세 및 규제 철폐 위주의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적 성향과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내세우고 있는 오바마 당선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의 당선 배경에는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와 경제적 실패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느닷없는 '닭은 꿀' 주장은 구차하고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오바마가 위대한 성공을 거둔 근본은 바로 미국의 현실과 잠재적 역량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확신을 앞세워 탁월한 언변으로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박찬 희망을 불어넣은 것이다.

세계적 경제 한파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서민 경제가 침몰 직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가하게 오바마와 닭은 꿀을 찾기보다는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룰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tuim@kwangju.co.kr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당정 TF 회의가 6일 국회 외투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데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위에 상정하고 조만간 밤미, 미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FTA 조기 비준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10일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 국회 승인안 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6일간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혜 의혹 ▲인수위 및 대통령 보고 및 조치사항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 마련 등이다.

국회는 18일부터 이틀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농촌공사, 19일에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등 5곳에 대한 관련 보고를 받아기로 했다. 이어 20~25일까지 농식품부,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26~28일까지 3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장운석·권경석·주성영·강석호·박준선·이범래·정해결·황영철 의원, 민주당 최규성·김우현·백원우·백재현·유운근·최규식 의원, '선진·창조 모임' 김창수·류근찬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연필뉴스

李 대통령 오바마 참모진 간담회

14일 G20 정상회의 기간중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G20 다자정상회의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통관 대변인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4일 G20 회의 참석차 워싱턴 방문시 브루킹스 연구소 주선으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 연구소장과 이 연구소 출신으로 오바마 캠프의 수석 리이스 국가안보문제 보좌역과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 정책 담당자, 이보 달터 수석연구원 등과 만날 것"이라며 "오바마 참모진들이 향후 외교안보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설명할 때 이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마지막으 자유토론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오바마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들과 정기적인 교류와 토론의 개최 등 동서갈등을 없애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해 여당 내에 '호남창구'를 자임하며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여수엑스포 유치특위 위원장도 맡아 여수엑스포 유치에도 공헌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광주시 명예시민 추대

광주시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사진)을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한다"고 6일 밝혔다.

48번째 광주명예시민이 되는 정의화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91년부터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창립해 부산과 광주의 기업가, 언론인, 예술가

경·공매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정맥 입점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 010-3666-8446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정맥 입점장 앞)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중앙동	154/416	1493000만	798000만
우산동	127/1431	6792000만	47억
우산동	188/193	1098000만	599000만
우산동	148/400	1297000만	791000만
우산동	137/223	891000만	395000만
안동동	362/893	4194000만	2895000만
우산동	1139/1959	11191000만	6292000만
우산동	40/34	499000만	294000만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백운동	48/35	9740만	5450만
우산동	43/50	193000만	7500만
중동동	41/22	7200만	2600만
신촌동	146/31	7100만	7100만
우동	150/20	7800만	7800만
소촌동	58/55	8800만	3800만
황곡동	176/87	4900만	2700만
금곡동	116/56	194000만	8200만
광명동	246/39	8300만	8300만
고신동	186/81	196000만	7400만
장성동	101/34	1억	7000만
계림동	55/22	8200만	4600만
▶아파트			
소재지	평형	총 면적(㎡)	감정가
신정동	호반5차	15층 34	1998000만
월계동	천안공호	9층 34	1910000만
진월동	정일	4층 28	198000만
봉산동	라보리츠	7층 22	3500만
신안동	그린	18층 24	8700만
대곡동	삼익	8층 32	8900만
문흥동	동흥	7층 32	9000만
회정동	리안동산	7층 32	8600만
금호동	해광대역	2층 31	9100만
두암동	그린	18층 33	191000만
▶토지			
소재지	필도	면적	감정가
하동	대지	625	792000만
월봉동	대지	203	793000만
동명동	대지	248	939000만
본악동	전	558	191000만
죽동	전	591	397000만
다산면	전	783	2900만
봉평면	담	1058	4500만
금현면	과수원	2600	991000만
대곡동	과수원	1362	8200만
원광동	담	822	2700만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우동	1565/688	2392000만	1692520만
운수동	634/185	1195000만	898000만
노안면	607/443	5914000만	2988000만
삼계면	1049/213	2297210만	198050만
둔덕	1248/641	797770만	498540만
▶근린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중앙동	65/289	495000만	295000만
우산동	134/400	1494000만	591000만
금남동	36/49	191000만	5100만
중동동	63/299	599000만	392000만
남동동	832/626	1694000만	598000만
중동동	54/01	295000만	197000만
▶농가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곡성읍	439/222	9400만	4230만
불산면	382/226	195000만	195000만
문곡면	738/410	2946000만	191000만
무성면	720/233	191000만	7720만
▶농업진흥사업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곡성읍	439/222	9400만	4230만
불산면	382/226	195000만	195000만
문곡면	738/410	2946000만	191000만
무성면	720/233	191000만	7720만

점면승인 1893명
평균 53,000원
농경지합
차량전입가능

지산동 대지 대2정
평균 170만원
원부지합
조선대만

화순남면주택 대124/245
매매가 5,500만원
내부구조도매

전북 남원시 대2616/21579
감정가1194000만
최저가1598000만
지리산호텔

오지동 대503/21944
감정가1698000만
최저가1198000만
대포항사/취업협

송정동27가 대187/21647
감정가147000만
최저가182700만
상가사무실

www.ieiysia.com

아이엘리시아

상품권 판매 돌잔치, 각종 모임 및 행사(100석룸, 50석X2룸 완비)

대표 류성호

회원카드 혜택

코스	이용 시간	평일	주말(공휴일)
런치뷔페	(평일) 12:00~15:30 (주말) 11:30~15:30	19,000원	24,000원
디너뷔페	(평일) 18:00~22:00 (주말) 17:30~22:00	24,000원	29,000원

각원모집
영업부 남직원
초보자, 경력자 가능 주휴 휴무
4대보험, 이력서 지참

15% 할인권
 본 할인권, 각종 식사(음료)에 15% 할인(주말, 공휴일 제외)
 (1월15일)

광주 남구 봉선동 138-2번지
플러스존 1층 (남구 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예약 문의 062)671-1199